조계종 종관위원장 혜일 스님 선출

6월 19일 제112차 회의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총무원장 문화특별보좌관 혜일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12차 회의를 열고, 현재 공석인 위원장에 혜일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前위원장인 성행 스님은 앞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로 선출되면서 위원장을 사직했다.

혜일 스님은 위원장 선출 직후 "부족하지만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관위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인 지원 스님 후임으로 우송 스님(신흥사 주지)과 지상 스님(총무원 총무국장)을 복수 추천키로 했다.

한편 기타 안건에서는 동국대 정각원 지도법사 등 종단서 검증된 스님들이 동국대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해 올바른 불자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또한 현재 인문대 · 약대에 비해 미진한 공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호섭 기자

교수불자대회 '4차산업 · 불교'

불교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한데 모여 4차산업과 불교의 접점을 논한다.

(사)한국불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성규, 이하 교불련)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4차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교수불자대회는 기조강연, 특별강연을 비롯해 30여 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기조 강연으로는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가 '4차산업 문명에 대한 불교적 조명'을 주제로 진행한다.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는 '명상, 뇌를 바꾼다'를, 박창규 성균관대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각각 특별강연을 펼친다.

또한 △인지과학과 융합명상 △응용불교 △인공지능과 불교 등 7개 분과에 거쳐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현실 참여를 위한 담론의 장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고법 판사 "선학원 인재 그렇게 없나"

서울고법, 법진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소심서

6월 18일 항소심 심리 열려
1960년대 정관변경 등 공방
법진 스님 이사장직 유지에
재판장도 견해 이례적 밝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추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이사장을 하는 게 법원 입장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선학원은 법진 스님 아니면 조직을 이끌 인재가 없는 곳인가 의문이다."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징역6월 확정판결을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항소심 심리 현장.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왕정옥 재판장이 심리가 진행된 6월 18일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채권자인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들의 법률대리인은 선학원 최초 정관에 삽입된 변경 불가능한 조항(평의원회 운영)이 1965년 4월 24일 정관변경되면서 폐지된 점을 항고 이유로 제시했다.

선학원 최초 정관에 따르면 제20조는 "평의원회는 평의원 반수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의사를 개최할 수 없다", 제22조는 "제20조 및 본조를 제외한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고, 또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최초 정관이 임의기관인 평의원회를 폐지할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이사회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법률대리인은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고, 사직서를 반려해 이사장으로 유임하는 등 선학원 이사회 의결이 과연 선학원 설립의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은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법진 스님도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고, 이사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리서 왕정옥 재판장은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직을 유지하는데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왕 재판장은 "이 정도 판결을 받았다면 일반 집단에서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법진 스님을 다시 선임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점이 있는 분이 이사장을 하는 게 선학원의 선택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재단법인 의사는 존중하나 외부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결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 배경에 대해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이 "선학원의 불교정화운동으로 지금의 조계종이 탄생했다"고 말하자 왕 재판장은 "그런 곳의 이사장이라는 분이 징역6월 판결을 받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이 이어 "물론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왕 재판장은 "그래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왕 재판장은 "성범죄에 연루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누명이라며 정치적 음모를 주장한다. 하지만 성추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스님뿐만 아니라 목사 · 신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리에서는 선학원 이사회가 지난 1월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학원 이사회는 전국 분원이 재단법인에 등록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단에 증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채권자 법률대리인은 "어느 재단도 등록 이후 취득한 재산을 증여하게끔 강제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국내 3대 종교지도자들과 정관계 인사,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3대 종교, 사회적경제 적극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종교계 공동 선언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등 국내 3대 종교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대 종교계는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 '자비와 나눔 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림형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3대 종교는 '사회적경제의 포용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대 종교는 △사회적 조직 적극 지원 △종교계 내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 △사회적경제 주체 배출 등을 다짐하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했다. 3법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된다.

원행 스님은 "사회적경제 활동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공존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다. 나와 이웃을 한 몸으로 여기라는 부처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다"며 "사회 양극화로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웃종교와 공존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종교계와 사회적경제가 힘을 합하면 일자리, 소득불균형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지속적인 정부혁신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제도를 정비하고, 종교계와 적극 협력해 포용국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대 종교 선언 이후에는 조계사 앞마당에 마련된 각 종교계 사회적기업의 홍보가 이어졌다.

윤호섭 기자

'유력후보 사퇴' 대흥사 선거 2파전

법조 · 법상 스님 대결… 보각 · 법인 스님 사퇴

前주지 월우 스님의 사직에 따라 차기 주지 선출을 6월 26일 실시하는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 선거에 6월 20일 기준 2명의 후보만이 남았다. 앞서 법인 · 법조 · 보각 · 법상 스님 등 4명이 나란히 후보등록을 마쳤지만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법인 스님과 보각 스님이 20일 후보사퇴하면서 대흥사 주지선거가 새 국면을 맞았다.

유력후보의 사퇴 배경에는 6월 19일 '대흥사 미래를 생각하는 승가모임'이 발표한 입장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승가모임은 "대흥사 교구본사주지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교구 내의 몇몇 스님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내세우면서 빚어진 결과"라며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본사주지 선거를 목도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승가모임은 주지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유력후보가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대흥사 차기 주지 선거는 법조 스님과 법상 스님의 양자대결로 좁혀졌다. 하지만 대흥사가 그동안 주지선출 과정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단일 후보를 추대해왔다는 점에서 남은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호섭 기자

불교성전 경율론 · 선어록 수록된다

편찬추진위, 수록범위 · 체제 확정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 지홍)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불교성전 수록범위를 경 · 율 · 론 3장과 선어록으로 확정했다.

불교성전편찬추진위는 4월 18일 상임위와 기획위 각 위원을 위촉했으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는 불교성전 구성을 불법승 삼보에 따른 주제별로 진행하며, 여기에 시대별로 중요한 주제를 삽입하기로 했다.

먼저 1장 '거룩한 부처님'에는 삼귀의와 부처님의 생애, 2장 '위대한 가르침'에는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과 중도 등의 기본 교설이 담긴다. 3장 '자비보살의 길'에는 불보살과 보시, 지계, 인욕 등이, 4장 '부처님의 나라(불국토)'에서는 전법과 관계, 불자로서의 삶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목차와 주제 명칭 등은 추후 수정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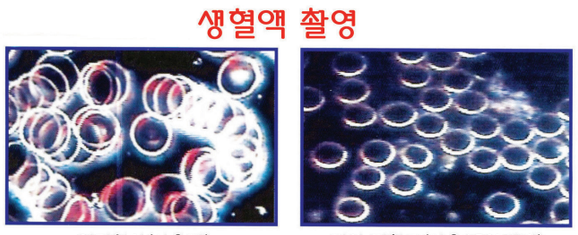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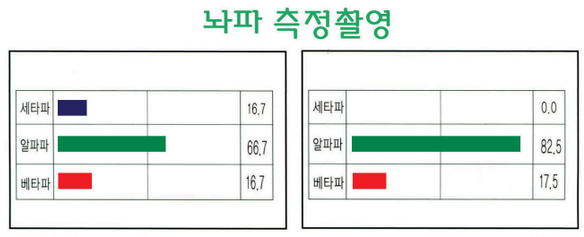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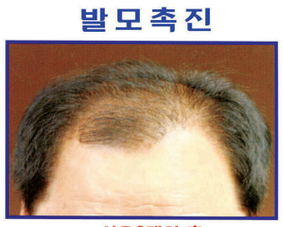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